

1997년 5월 5일 월요일

□ 박정희 신드롬을 분석한다

“각하, 보고 싶습니다”

강력한 지도자 갈망하는 표현...사회 망각 풍토 반영 증거

난세는 영웅을 부른다. 말 이 있다. 어려운 시기에 민중들 은 이 어려움을 수습해 줄 절 대자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과거 히틀러가 그렇게 세계제 패 의 꿈을 꾸 것도 난세에서나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침체와 높아져 가는 실업률,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 잇단 고위 공직자 비리혐의 등은 현 우리사 회가 그야말로 ‘난세’임을 대변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아직 까지 영웅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과거 해방이후 계속되던 빈 곤을 해결했던 인물이 있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 인 물이다. 그가 어떻게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는가는 잠시 접어 두고 경제발전이란 부분에서 ‘80년대의 신화’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은 20년이 넘는 지금 국민들이 다시금 갈구하는 인 물로 추앙받고 있는 듯 하다.

박정희 가장 존경해

지난 3월 고대신문이 고대생 을 대상으로 한 ‘인간복제에 대 한 의식조사’라는 설문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장 복제 하고 싶은 인물 3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 4월 ‘사랑의 전화’에 서 20~6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복제하고 싶은 인물’ 설문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으뜸 에 올랐다. 또 한가지 지난 연 말 공보처에서 실시한 ‘역사적 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설문 조사에선 박 전 대통령은 23.4 %로 1위에 올랐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두고 우 리는 ‘박정희 신드롬’이 나타났 다 한다.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어버린 박정희 신드롬에 대해 유도진 (사회)교수는 “정부의 정책일 관성의 결여와 경제불황으로부 터 생활안정,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는 표현이다”라 말한다.

PC통신자 부정적 반응

하지만 젊은 층이 대부분인 PC통신에선 박정희 신드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채널워주 경제 정책’으로 현재 기술력 개발이 더딘 우리 산업이 박 전 대통 령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박 정희 신드롬은 과거의 망각이 다.(천리안 I.D: lazyyi) 또는 ‘독재와 인권탄압을 일삼던 그 를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되살 리고 싶다는 고대생들의 생각 은 비판받아야 한다.(천리안 I.D: C761223)’는 등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영원한 제국’을 집필했던 이 인화씨가 박정희 신드롬에 편

승하는 듯 일마전 박 전 대통 령의 일대기를 주제로 한 소설 인 ‘인간의 길’을 발표했다. 서 문에서 이인화씨는 ‘우리는 이 렇게 자신의 운명을 밟고 일어 섰다. 하된다. 이렇게 한 번 이 가능했다...’ (중략)... 나라 전체가 나라에 떨어져 무력감 에 사로잡혀있는 지금 나는 이 소설을 마쳐 이 말을 하고 싶 었는지 모르다’며 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정치에 대한 강한 부정

하지만 이 책의 출판에 대해 계명대 신문사는 4월28일자 신 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민주화 흐름을 부정하면서 과거 군부세력의 복권을 ‘향수’처럼 그리워하는 보수적 정치권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요즘과 작 품출간의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는 사실은 작가의 사회적 책임 을 의심하게 된다.”

이같은 ‘박정희 신드롬’은 우 리사회의 망각풍토를 반영하는 증거일 수도 있었고 현 정치에 대한 강한 부정의 증거일 수도 있었다. 하여간 오는 12월 난세 를 다스릴 ‘영웅’이 나타나지 만 이 신드롬이 깨지지 않을까 싶다.

(김동욱 기자)



▲1970년 이승만공탄신 425를 기념 도대항 활쏘기 대회에서 시범을 보이고 있는 박정희대통령

강단시론

김기국

(외대 불문과)



외국어 대학관 강의실에서 청문을 통해 보이는 새 봄의 파란만장한 초목과 어우러진 하얀 색의 목련 그리고 진달래의 예쁜 진분홍 빛. 하늘을 향해 피어있는 목련의 청초하고 우아한 자태는 그 향기를 자기 키만큼이나 드높게 퍼뜨림에 비해 작은 몸이 부끄러움 을 만개시켜 캠퍼스의 봄을 바라보는 우리 의 눈을 즐겁게 한다.

가슴의 영혼을 느끼는 시

자! 다시 강의실로 돌아오자. 그리고 더 위가 가슴을 부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잔 잔한 때아리로 남는 푸르름이 가득한 시 한 편을 읽어보자. “물 속에는/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하늘에는/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 다/그리고 내 안에는/나만이 있는 것이 아 니다/내 안에 있는 이여/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홀로서/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그대가 곁에 있어도/나는 그대가 그림자”(류시화—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시를 가슴으로 영혼으로 쓰고 느끼는 사람

는, ‘홀로서’, ‘만나는’에서는 이들 단어가 갖 는 구체적 행위가 그리고 ‘그림자’에서는 감 정적 열망의 이행이 시의 두번째 연을 운통-움직임으로 장식하고 있다. 2연에 나타난 움 직임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1연에서 언급 된 물, 하늘, 나라는 주체가 하늘, 물, 그대 라는 객체에 이어지며 이들 각자가 절차로 혼합됨을 알 수 있다. 그대는 이미 내 마음 을 흔들고 있으며 물과 하늘 또한 내 안의 만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7~10행이 그대를 향한 나의 애타는 그리움 임의 표현이며, 흔들고 흐르며 만나는 행위 의 주체가 그대라기 보다는 나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마지막 두행이 이러한 깊은 열 망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그대가 곁에 있어 도/나는 그대가 그림자’라는 그리움의 절절 한 토로는 바로 ‘왜’라는 질문의 답 자체일 것이다. 물, 하늘, 나라는 존재는 자신이 아 니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위한 그대를 향한 그리움의 정수이며 사랑의 극 치가 아닐까? 타자의 이러한 적극적 투사 야말로 개인이 너무 과장되고 강조된 이 시 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이 시를 읽고

내 안에 있는 나

들에게는 왜 이 시가 커다란 울림으로 남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시 의 본질을 흐트리는 일은 없으리라. 그럼에도 막연하고 인상적인 감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선 ‘무엇이’, ‘왜’라는 질문을 학생 들에게 던지고 그 답을 생각해 하면서 우리 의 가슴은 작으나마 조금씩 그 울림의 근원 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물고기, 수 초, 인어 등이, 그리고 구름, 바람, 새 등이 물과 하늘에 있을 수 있다는 조금은 우습지 만 당당한 대답에서 물 속에는 물 표면엔 비친 하늘이 존재하며 하늘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물이 있다는 새로운 답을 학생들이 찾아낸 것은 이 시의 5~6행의 끝글자를 통 해서이다. 내 안에 있는 존재는 바로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바로 그대이며(시의 7~8행에서 확인된다), 이같은 대응관계가 1~4행의 물과 하늘이 맺고 있는 의미망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5~6행은 우리 의 시선을 시가 묘사하는 외부 공간에서 시인의 내면세계로 이끌어준과 동시에 시의 1~2연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이제 ‘왜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자. 아! 이 ‘왜’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기 전에 1연에서 드러난 주된 이미지의 하나가 물과 하늘 그리고 나의 상태, 다시말해 정지 혹은 비유동성(아직 물과 하늘은 흐르는 단 계가 아니나 나 또한 막연히 여기에 있기만 한다)이라는 것을 주목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러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움 직임을 시의 2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흔드

느껴야 할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조금은 길게 진행된 시 읽기를 이 정도에 서 마치고 이제 다시 강의실에서 눈을 돌려 저기 초록의 야산으로 가보자. 그곳에는 새 봄의 푸르름과 공존하는 이른 더위의 열기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짧게 끝나버린 해바라 기의 아쉬움보다 더 우리를 무력하게 아니 분노하게 하는 세상살이도 있다. 이제 막 끝 난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와 굶주림으로 인 해 인간이 두려워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포 기하며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소식도 있다.

우리를 분노케 하는 세상

자신들의 부정한 이익과 거짓으로 덮여진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엄연한 현실과 서툰발 같은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있 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만을 사실인양 목소리 크게 외치며 사는 걸 까? 어쩌서 ‘내가’ 있기 위해 ‘그대’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나 쉽게 또한 자 주 잊고 있을까?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심 을 떨쳐버리고 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참된 인정이 아닐까. 내안에 있는 그대를 그리워 하는 절실함과 곁에 있어도 더욱 상대를 가슴에 보듬어 안으려는 순수함을 갖고 싶다. 말잔치로 끝나는 이같은 나의 생각도 잠시, 청문회장의 증언에 대한 고통과 평생 직 장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한 사람의 죽 음을 접하고 난 후, 다수의 폭력에 동조한 나의 사고도 내 안에 나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어리석음으 로 가득차있음에 부끄럽다.

현장취재

□ 10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1백7주년 메이데이 기념행사장인 장충공원으로 민주노총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메이데이인가 매질데이인가

민주노총, 노동자 정치 세력화 피력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 및 97 세계노동절대회”가 전국 민주 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주최로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오후2시 장충공원에서 열렸다.

1만8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 한 이번 행사에서 권영길(민주 노총위원장)씨는 “임금투쟁승리”와 “대선에서 노동자정치세력 화”등을 주장했다.

권위원장은 98년 임금투쟁 계획에 대해 “정부측의 무상교 육 실시, 주책수당지급 그리고 의료보험 국가제정이 마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투쟁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자금과 관련한 연 설에서는 “노동자들의 피땀어 린 돈으로 만들어진 돈이다”며 “정권권이 대선자금을 공개하 지 않으면 강도높은 투쟁에 나 서겠다”라 말했다. 또한 “한보 의 돈을 받아먹은 지금의 색은 정치를 희망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에서 정치의 주 체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혀 대선참여의사를 보였다.

이어진 대회사에서 허창(민주 노총 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씨는 “국제기구에서도 북한 을 인도나, 아프리카보다 우선 수혜국가로 지정했다”며 “양심 이 있는 한 인간으로써 이념, 사상, 체제를 넘어 겨레사랑에 힘써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북한 동포돌봄이 조속히 이루어져 야 함을 주장했다.

4시30분께 장충에서 열릴 마 우리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집 회 참석자들이 장충로 진행하 려 하자 전경들이 이를 강력히 저지했다.

전경측에서 최루탄과 최루액 을 쏘아 부으며 집회해산을 강 요하자, 민주노총측과 학생들은 돌을 던져가며 이에 대항하였 고, 동국대측의 언덕에서도 학 생들이 합세해 장충공원과 동

국대입구 사이의 도로가 일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격한 상황속에서 민주노총 간부의 제재로 민주노총과 전 경간의 충돌이 가라앉자 다시 금 인도와 지하철도를 통해 마무 리 집회장소인 장충로 이동하 였다.

이후 장충로에서 시민과 전경 사이의 신경전이 몸싸움으로까 지 번져 큰 충돌이 빚어졌다.

이를 취재하던 후미오 나시 야마(중국신문기자·31세)씨는 “마치 쿠데타를 보는 것 같다” 며 “일본의 70년대 거리상황과 흡사하다”라고 말했다.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번 메이데이 행사는 메이데이 의 참뜻을 찾고 선배노동자들 의 뜻을 기린다는 의도를 전경 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최현일 기자)

經濟大國 日本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日本の政府와 企業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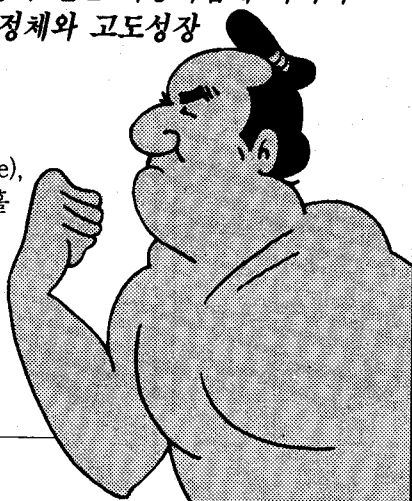
●신국판/342면/값 8,500원

日本株式會社の 정체는?

일본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정부인가 기업인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는 통산성과 일본 자동차업체 사이의 치열한 게임을 통해 ‘일본 주식회사’의 정체와 고도성장의 비밀을 파헤친다.

우리는 일본을 알고 있는가?

수수께끼 같고(enigmatic), 이해하기 힘들며(elusive), 정부의 실체가 없는(stateless) 나라, 정보의 블랙홀(information blackhole)로 불리워지는 일본.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세대는 일본에 대한 제한 된 경험을 확대해서 이해하고, 젊은 세대는 처음 부터 일본을 잘 모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MIT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企業經營理念>이 있고 역서로 <競爭戰略>이 있다.

정몽준 著

韓國經濟新聞社

출판부: 312-0063, 313-8293 / 출판부: 3504-556-8

제3회 대학생 원자력논문 현상공모

열린 가슴으로 원자력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대학생 원자력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응모자격

• 전국 4년제대학 재학생

논문주제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에너지 선택
- 21세기 에너지 확보방안
- 원자력시설과 지역사회의 공존공영방안
- 한반도 통일과 원자력의 역할
- 원자력에 대한 자세대 교육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원자력시설 유치방안
- 이와 유사한 내용의 논제중 택일

논문분량

- A4용지 15~20장 이내 W/P로 작성
- 요약문(A4용지 2장)첨부

응모기간

- 1997. 7. 10 ~ 9. 10(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

시상내용

구분	시상내용
최우수상(1명)	통상산업부 장관상 및 장학금 200만원
우수상(1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상 및 장학금 150만원
각(2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상 및 장학금 70만원
장려상(5명)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상 및 장학금 50만원

특전

- 국내 원자력시설 견학 : 음모자 전원
- 일본 원자력시설 견학 : 최우수상·우수상·각작 수상자
- * 단, 공동집필의 경우 해외연수는 1작품당 1명에 한함.

접수 및 문의처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3-15 윤일빌딩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교육사업실 논문공모 담당자 앞
- 전화 : (02)588-6660(구내162) 팩스 : (02)521-3426

입상자 발표

- 1997. 10. 20(월) 각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유의사항

-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됩니다.
-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전을 명기하십시오.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 재단에 귀속됩니다.
- 논문원고 표지에 주소, 전화번호, 소속대학 등 연락처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에 관한 어떠한 공공도 없습니다. 관련자료 혹은 기사편견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588-6660, 교육사업실)으로 연락 주십시오.

- 주최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 후원 : 통상산업부